

## 건축가가 되겠다는 아들을 위해

### For Those Would Be Architects

김인환 / TAS 건축사사무소  
by Kim In-Hwan

필자에게는 건축가가 되겠다는 아들이 있다.

아주 어렸을 때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대통령이나 경찰관, 군인이 되겠다고 하던 녀석이 중학교 때부터인가 갑자기 건축을 공부하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어릴적 장래희망들처럼 그저 깊은 생각없이 말하는 것이려니 생각했는데 언젠가 가족끼리 동해안으로 여행갔을 때 녀석이 진지한 태도로 자신의 꿈을 얘기하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일을 따라 하겠다는 녀석이 대견하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필자가 하는 일의 무엇이 좋아보여서 그랬는지, 혹은 아버지로서 어떤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나 싶어 책임감마저 느끼게 했다.

그러던 녀석이 금년 대학입시에서 드디어 건축과에 합격했다.

복잡한 입시절차에 따라 몇 개 대학의 건축과에 원서도 제출했지만 최종 발표날까지 마음 풀이면서도 오직 건축과만을 고집스럽게 지원한 결과였다. 비록 애당초 기대했던 대학이 아니어서 아쉽긴 했지만 녀석의 점수로 그 대학 건축과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만족하였고 남들에게도 건축과라는 것을 강조할 만큼 여유도 생기게 되었다(사실 건축과가 다른 유사학과들 보다 20~30점 가량 커트라인이 높았기에...).

이제 건축가가 되기 위한 일차 관문인 대학입시를 통과한 아들에게는 내가 겪었던 많은 경험과 시행착오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선 필자처럼 특별한 생각도, 뚜렷한 목적도 없이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 건축을 할 일이 아니라 "뚜렷한 진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과 스케줄"에 따라 건축을 공부시키고 싶다.

먼저 건축은 공학과 예술, 그리고 인문, 사회, 과학 등이 종합된 분야이고, 흔히들 건축을 설계와 시공에 국한해 생각하지만 최근 관련 컴퓨터분야만 해도 매우 다양해서 건축환경 등 많은 분야로 보다 세분화, 전문화 돼가는 추세이므로 자신의 적성과 그 분야의 장래성 등을 고려해 진로를 설정해주고 싶다.

또한 건축은 무엇보다 창의적이고 풍부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학문으로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종합적인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소양을 쌓아야 한다. 그래서 음악, 연극, 영화,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유도

해 마음의 양식과 풍부한 상상력을 기르게 하고 싶다.

훌륭한 음악가는 단순히 기교가 뛰어나고 실수없는 완벽한 테크닉을 가진 연주자가 아니고 얼마나 심오하며 내면적인 음악적 표현을 자신의 감정에 맞게 연주를 하느냐에 달려 있듯이 건축가도 기술자가 아닌 진정한 종합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축적인 지식만으로는 부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여러 곳의 여행을 권하고 싶다. 여행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상상력과 꿈을 갖게도 하며 일상생활에서 느끼지 못한 것들을 느끼게도 해준다. 복잡한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여유롭고 느긋한 마음으로 보는 자연의 신비로움과 웅장함도 그렇거니와 다양한 건축물들에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지 않는다. 아마도 여행에서 느끼고 배운 인간적인 삶의 현장과 아국적인 정취 등은 교실에서 배우는 그 어떠한 훌륭한 강의보다 내면적 마음의 양식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음악가나 예술가들 또한 여행을 통해 그들의 예술성을 드높이지 않았던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건축가 르 꼬르뷔제도 청년시절 유럽 각지를 여행하면서 큰 감명을 받아 건축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여행은 건축가가 되겠다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땅에서 건축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아쉬움 점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우리의 건축교육이 지나치게 이론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도 그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 중의 하나이고 이러한 토양에서 건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 학교교육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싶다.

한 학과에서 설계교육과 공학관련 교육을 같이 하고 있다는 문제(건축과와 건축공학과는 분리돼야 한다), 실무교육의 부족, 짧은 수업연한 등 현재의 건축교육으로는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경쟁할 수 없다며 건축교육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필자 역시 오랜 건축실무경험에서 느낀 것은 학교교육과 실무현장간의 현격한 차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아들도 이러한 체제의 건축교육을 받아야 할 것

이고 그 틀 안에서 공부하게 될텐데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이러한 학교교육의 부족한 점을 보충시켜 주어서 진정한 건축가의 길을 걷게 하고 싶다.

예를 들어 스케치는 건축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실제 작업과정에서 또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에 관한 학교교육은 형식적이고 현실적이지도 못하며 사실 실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수준 또한 현저하게 낮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또한 건축과 관련된 컴퓨터분야는 어떠한가.

모든 설계사무소에서 제도판과 T자가 사라지고 CAD로 도면작업을 하게 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이제는 각종 현상설계나 프리젠테이션 도면 등에 있어 그래픽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엔 시뮬레이션이나 애니메이션 등 동영상 단계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아마도 아들 세대가 건축활동을 할 때쯤이면 이 모든 것이 일반화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지 모를 일이 아닌가!

이밖에도 아무리 학교교육이 건축적인 소양을 배양하는 단계라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너무나 많고 더욱이 건축은 실제 경험이 필요한 분야로 외국의 경우에도 일정기간의 현장실습이 필수화되고 있음을 볼 때 실질적이고 실무적인 경험을 쌓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 국내외에서 경험하고 체험한 필자의 여러 건축경험이 실제로 아들의 건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자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뒷받침을 다해 녀석의 앞날에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특히 녀석이 건축을 하겠다고 했을 때 훗날 정말 아들이 건축가가 되어 이 아버지의 건축행적을 보고 무어라 말할까 솔직히 염려가 되기도 했지만 필자 자신 뿐 아니라 이러한 아들을 위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제 건축가로서의 첫 관문을 통과하고 건축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아들이 거쳐야 할 과정들을 상상해 보면 또 솔직히 이 분야의 장·단점과 속성을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염려되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자신의 적성과 꿈에 따라 선택한 건축가로의 앞날이 험통하기를 이길을 앞서 걸어온 아버지로서 빌어본다.